

# 문무일보다 5기수 아래 파격... 윤석열 발 줄사퇴 최대 100명?



## 법조인 동정



〈2018년 1월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앞에서 첫 번째), 봉옥 대검차장(앞에서 두 번째) 등 검찰 수뇌부와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59세, 사법시험 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검찰 내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58세,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연수원 18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 늦어 19~23기가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23기 검찰 주요 인사는 봉옥(54세, 사법시험 제29회, 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세,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세,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등이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쓴소리를 한 윤용걸 전주지검장(53세,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원 21기)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표를 의식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송인택(56세,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도 모두 윤 지검장의 선배다.

검찰 내 고검장·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19~22기는 20명 가량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윤 지검장 발탁으로 주요 보직 인사들은 바로 사표를 내겠지만 1~2년 내에 나갈 검찰 고위직까지 감안하면 사퇴 인사가 100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세, 사법시험 제33회, 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사진은 윤 내정자가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주현 전 대검차장의 이임식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다만 기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어 사임할 검찰 간부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21~22기는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23기인 동기들은 그대로 남는다면 사임할 대상은 19~20기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도 기수 문화를 고집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년인 만 63세를 끝까지 지키면서 내부에서 쓴소리를 해야 검찰 조직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19~23기 검찰 간주 대부분보다 연배가 높다는 것도 분위 변화의 요인이 될수 있다.

윤 지검장은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이 된다. 1988년 이전에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1981

년 정치근(고등고시 제8회)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과 가슴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의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도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법관에 대한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